

사학연금

Teacher's pension magazine

02

Vol. 435
2023.February



成宗 이월

사학연금이 만드는 매거진

사학연금



표지이야기

2월은 교복을 벗게 되는 졸업시즌이죠?

학생임을 증명해주는 교복은

학생답게 행동하라는 제약이면서 보호대상임을 드러냅니다.

조선 시대에는 성종이 유생에게 청금(靑襟)을 입혔는데요.

사학연금 2월호는 청금을 제복으로 정한

성종의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CONTENTS



발행인	주명현
발행일	2023년 2월 1일(비매물)
발행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의	061)338-0363
주소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대표전화	061)338-0000
등록번호	나주 라 00010
등록일자	2006년 1월 12일
기획·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주)
연금업무 상담	1588-4110(유료)

공감

- 04 **명언**
공직자의 청렴과 원리원칙을 중시한 왕성종의 어록
- 06 **인물**
어찌다 왕위 계승? 태평성대를 이룩한 성종
- 10 **여행**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 책
- 14 **짓다**
 - 짝꿍
 - 겨울 마이산 탐사 가는 길
 - 자작나무 숲에서

소통

- 18 **건강 식**
한라봉의 재탄생, 차가운 에이드 & 따뜻한 티
- 20 **인생 책**
시대가 변해도 결코 바뀌지 않는 부동산의 본질
- 22 **지구 인**
현명한 소비자가 지구를 지킨다!
저탄소 인증제품
- 26 **경제 톨**
난 좋아하는 분야 하나면 돼!
MZ세대의 소비트렌드, '디깅소비'
- 28 **이런 앱**
전쟁같이 느껴지는 주차는 이제 그만!
'모두의주차장'
- 30 **요즘 말**
유튜브 이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댓구알'

알림

- 32 **신년 소식**
2023년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 34 **독자 마당**
- 35 **제휴 복지**

공직자의 청렴과 원리원칙을 중시한 왕 성종의 어록

이맘때가 되면 각 학교에서는 졸업식과 새 학기 준비로 분주하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 입고 갈 교복을 입어보며 새 학기를 준비한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교복. 우리 역사에서 법으로 규정한 최초의 교복은 무엇일까. 조선 최초의 국립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 유생들이 입었던 '청금복'이다. 조선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성종 8년, '성균관 유생은 청금단령을 입는다'라며 법으로 규정해 두었다. 청금복은 검약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아 의복에서도 청빈성을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당시 왕이었던 성종의 정치신념을 엿볼 수 있다. 공직자의 청렴과 원리원칙을 중시한 왕, 성종의 어록을 소개한다.

글 유민지

청탁이란 있을 수 없는 일

세자 시절의 어린 성종을 마치 부모처럼 정성으로 키웠던 유모는 성종이 왕이 되자 자신의 지인에게 관직을 달라며 성종에게 은밀히 부탁한다. 하지만 성종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너는 무슨 물건을 받고 이런 부탁을 하는가. 내가 은밀히 사람을 만나 관직을 준다면, 나랏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다시 이런 말을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엄마처럼 정성껏 키워준 유모에게조차 정해진 규범과 원리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강조했던 성종. 그가 공정성과 원리원칙을 얼마나 중요시했던 왕인지 알 수 있는 일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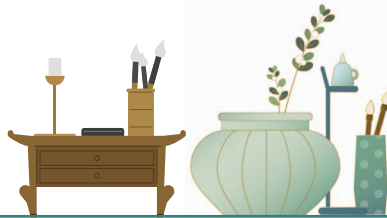
청렴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윤리 중 하나로 꼽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라는 뜻이다. 즉 자신의 본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보자.

국가재난을 대하는 왕의 자세

우리 역사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때가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부터 순종까지 가뭄에 대한 기록만 무려 3,173건에 이른다. 성종이 재위할 당시에도 가뭄으로 인해 많은 백성이 고통 받았다. 물이 없어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해 기아가 늘고, 기근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조선 천지에 가득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성종은 자신의 수라상 반찬 수도 줄이라고 명한다.

“가뭄이 심하니 이제부터 각전의 낮 수라는 단지 수반(물 말은 밥)만 올리게 하라.”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은 기본 12첩 반상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물 말은 밥만 올리라고 명한 성종. 나라의 가뭄과 기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재난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왕의 자세가 아닐까.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리더 또는 책임자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성종의 모습은 통해 알 수 있다. 



자고 일어났더니 조선의 왕이 된 인물이 있다. 조선 후기 만연했던 외척의 세도정치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오'다. 어쩌다 임금이 되어 어른들 등쌀에 힘겹게 왕노릇을 하다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친정을 시작한 조선 제9대 왕 성종이다. 성종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친정을 시작한 이후로는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며 세종 시기 이후 가장 평화로웠던 조선을 다스린 왕으로 평가받는다. 왕권 강화와 태평성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종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정미래

어쩌다 왕위 계승? 태평성대를 이룩한 성종



성종의 빛나는 업적, 《경국대전》

성종의 연관검색어는 누가 뭐래도 《경국대전(經國大典)》이다. 성종은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다시 말해 세조의 손자다. 성종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에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인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직접 정치를 하며 조선의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기 위해 힘썼는데, 그중 하나가 《경국대전》의 완성이다.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세조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후대에 길이 전할 법전을 만들고 싶어 했고, 성종은 할아버지인 세조의 꿈과 바람이 담긴 조선의 기본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경국대전》의 완성한 성종은 조선의 대표적인 정책인 숭유억불(崇儒抑佛)을 철저히 시행하면서 유교적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 그래서 성종을 조선 정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경국대전》은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까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만든 법전이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 규범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경국대전》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을의 관리가 임의로 판결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도 있었다. 《경국대전》이 생긴 이후로는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졌다.



교육과 문화를 꽃피운 성종

성종은 교육과 문화 진흥에 힘쓴 왕으로도 알려져 있다. 먼저 '사가독서(賜暇讀書)'라 불리는 호당(湖堂) 제도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문신 중 덕과 재주가 있는 신진학자 5~6명을 매년 선발해 이들에게 직무를 쉬고 학문과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유학의 진흥을 위해 노력한 왕 답게 성종은 유교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서당을 졸업하면 지방 학생은 향교로, 한양 학생은 4부 학당으로 진학을 했는데, 향교와 4부 학당은 국가가 세운 국가 교육 기관이다. 특히 4부 학당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았으며, 일 년 성적이 왕에게 보고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시대 최고의 고등 교육 기관인 성균관도 성종 때에 완성된 형태를 갖췄다.

성균관에 대한 후원도 아끼지 않았다. 존경각(尊經閣)을 지어 경전을 소장하였고, 양현고(養賢庫)의 재정 확충을 통해 학문 연구에 힘쓰도록 했다. 또 성균관과 전국의 향교에 학전(學田)과 서적을 분배했다. 국가 교육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금과 책을 후원한 것이다.



서적의 간행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조선의 지리서인 《여지승람(輿地勝覽)》, 고대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엮은 《동국통감(東國通鑑)》, 조선 시대의 시와 산문을 엮은 《동문선(東文選)》, 윤리와 의례를 담은 《국조오례의(五禮儀)》, 다양한 의궤와 악보를 정리한 《악학궤범(樂學軌範)》 등을 편찬·간행하였다.



유학의 진흥을 위해 노력한 왕 답게 성종은 유교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서당을 졸업하면 지방 학생은 향교로, 한양 학생은 4부 학당으로 진학을 했는데, 향교와 4부 학당은 국가가 세운 국가 교육 기관이다.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고 북방 방비에도 힘쓴 성종


성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희왕후의 수렴청정과 함께 세조 때부터 세력을 잡은 훈구파들이 원상으로서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 원상은 국왕에게 병이 생겼을 때나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국정을 의논하는 임시 관직이다. 이 때문에 성종은 왕위에 올랐으나 국정에 참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성종이 성인이 되고 친정을 시작한 후부터는 김종직, 김굉필 등 사림(士林) 세력을 등용하여 강력한 세력을 잡고 있던 훈구파를 견제했다.

삼사제도를 확립한 것도 성종의 업적 중 하나다. 언론삼사라고도 했는데, 여기서 삼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다. 사헌부는 모든 관리에 대한 감찰과 탄핵 및 정치에 대한 언론을, 사간원은 국왕의 곁에서 간쟁과 정치에 대한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또한 홍문관은 궁중의 서적과 문장가를 관장하는 곳이었다. 특히 홍문관은 세조 때에는 그저 책을 보관하는 곳에 불과했으나 성종이 예문관에서 분리하여 학술·언론기관이면서 왕권을 호위하는 정치 기구로 만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홍문관에 등용된 관리는 출세가 보장되기도 했다.

성종은 국방 대책에도 힘을 썼다. 1479년 좌의정 윤필상을 도원수로 삼아 압록강을 건너 남만주의 건주 지역에 살던 여진족의 본거지를 정벌하였고, 1491년에는 함경도 관찰사 허종을 도원수로 삼아 2만 4,000명의 군사를 두만강 건너로 보냈다. 주로 만주 원시림에 사는 여진족 ‘우디기’의 모든 부락을 정벌하여 북방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한 것이다.

많은 것을 이룬 왕, 성종

성종의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많은 것이 변화하였고 발전했다. 그러나 태평성대는 길지 않았다. 성종이 유희에 빠졌고 뇌물도 성행했기 때문인데, 계비인 폐비윤씨 사건이 궁궐에 피바람을 몰고 오며 태평성대의 끝을 앞당겼다.

그럼에도 성종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반과 체제를 완성시킨 왕으로 기록된다.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서적을 간행하고, 조선의 주요 정책인 승유역불 정책을 강력히 펼쳐 조선을 명실상부 유교국가로 우뚝 세웠기 때문이다. 또 교육 정책의 발전에 힘썼으며, 왕권도 강화하였다. 많은 것을 이루고 발전시킨 왕, 그의 묘호가 성종(成宗)인 이유다.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 책



독서를 하는 건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와 같았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백일장, 독서토론회, 글짓기 대회 등 책과 관련된 여러 대회나 콘텐츠들을 무수히 접하며 자라왔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읽을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등 다양한 이유와 핑계로 우리는 독서와 벽을 쌓고 지냈다. 옛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 조선 시대 왕들만 봐도 우리 민족이 책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다. 조선 전기 세종과 성종,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왕으로 유명하다. 특히 조선 9대 왕 성종은 독서당을 세우고,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고 독서제술에 전념하게 할 만큼 독서를 중시하였다. 아직 책과 벽을 쌓고 지내는 이들을 위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서울 속 공간들을 소개한다.



66

송파책 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공립 책 박물관으로

책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전시를 볼 수 있다.

99

책으로 만나는 역사와 문화

'송파책 박물관'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우리나라 책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있는 '송파책 박물관'이다. 이곳 송파책 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공립 책 박물관으로 책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전시를 볼 수 있다. 전시로는 조선 시대 독서문화를 알 수 있는 '향유-선현들이 전하는 책 읽는 즐거움'부터 1910년 일제 강제 병합 이후 100여 년간 전개된 독서문화를 보여주는 '소통-세대가 함께 책으로 소통하는 즐거움' 그리고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세상, 책을 만드는 즐거움'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시를 다 보았다면 이제 옛 우리 역사를 담고 있는 고서들을 실물로 만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로 이동하자. 이곳에서는 여느 박물관처럼 유리관 속에 보관된 고서의 표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고서를 펼쳐 읽어볼 수 있다. 또 우리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고서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관리·보존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유물과 전시를 다 보았다면 책과 함께 놀며 책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북키움'을 관람할 차례다.

'북키움'은 세계 명작 동화를 즐거운 상상과 다양한 감각으로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백설공주, 책과 콩나무, 별거벗은 임금님 등 각 동화별로 공간을 나눠 실제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백설공주 칸에서는 백설공주에게 줄 독사과도 마녀의 손에 올려보고, 거울을 보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질문하면 거울이 백설공주라며 답변도 해준다. 아이들에겐 책에서만 보았던 공간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 즐겁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찾아주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책과 친해질 수 있다.

송파책 박물관

주소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77
 문의 02-2147-2486
 홈페이지 <https://www.bookmuseum.go.kr>

00

따사로운 햇볕 아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새소리를 백색소음 삼아
책을 읽을 수 있다.

99

양천공원 책 쉼터

주소 양천구 목동동로 111
문의 010-9809-0596
홈페이지 <https://ycpark.kr>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양천공원 책 쉼터'

다음은 자연 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양천공원 책 쉼터를 소개한다. 조용하고 답답한 도서관의 분위기를 떠올렸다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도서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양천공원 책 쉼터에서는 따사로운 햇볕 아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새소리를 백색소음 삼아 책을 읽을 수 있다. 아무래도 공원 내에 위치하다 보니 책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볍게 산책을 나온 사람들, 운동을 즐기러 나온 이들에게까지 각자 자기만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그림 같다.

양천공원 책 쉼터에는 약 9,7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도서는 물론 문학, 여행,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성인도서까지 구비되어 있다. 아이와 도서관에 갔을 때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신나서 웃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곳 양천공원 책 쉼터에서는 그런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소리 내어 동화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책의 내용을 주제로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다만 공공장소이니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기본적인 공공장소 에티켓만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모두가 편안한 책 쉼터가 될 것이다.





00

도서관 이름인

'내를 건너서 숲으로'는

운동주 시인의 시

'새로운 길'의 첫 구절이다.

이름에서부터 운동주 시인을

기념하는 도서관임을

느낄 수 있다.

99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주소 은평구 증신로17길 50
문의 02-307-6701
홈페이지 <https://www.nslib.or.kr>

독립운동가 운동주를 기억할 수 있는 곳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마지막 도서관은 은평구에 위치한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이다. 이곳은 독립운동가이자 문학인인 운동주 시인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곳이다. 도서관 이름인 '내를 건너서 숲으로'는 운동주 시인의 시 '새로운 길'의 첫 구절이다. 이름에서부터 운동주 시인을 기념하는 도서관임을 느낄 수 있다.

다른 독립운동가가 아닌 왜 운동주 시인일까. 운동주 시인이 졸업한 평양 송실중학교가 바로 현재 은평구 송실중·고등학교의 전신이기 때문이다. 송실중·고등학교 아래 신사 근린공원에 위치한 도서관은 운동주 시인의 민족정신과 문학정신을 기린다.

2층의 전시실에는 운동주의 생애와 작품, 당대 사회상황과 주변인의 동향을 통해 운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운동주의 길', 한반도와 만주, 일본을 거쳐 갔던 운동주 시인의 생애를 지도로 볼 수 있는 '운동주의 행적', 운동주 시인이 교류했던 사람들, 그들이 기억하는 운동주 시인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보여주는 '운동주에 대한 기억들', 운동주 시인의 작품을 낭송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시 낭송 오디오 청취 공간',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영상 감상 공간'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곳 도서관 방문만으로도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조상들의 삶과 독립을 위해 매일 고민하며 시를 지었을 운동주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map](#)

작 공

글 지창원(효명고등학교 재직)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겨울이면 얼어 있는 공동 펌프를 뜨거운 물로 녹여가며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던 서울의 변두리에서 생활하며 코 흘리고, 지저분한 머리, 누런 치아, 몸에서 나는 냄새까지. 그런 남자아이를 초등학교(당시엔 국민학교) 여학생들이 멀리하고자 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초4, 5월이 오기까지는...

나랑 짝을 할 여학생이 없어 늘 교실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내 옆자리로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전학생...,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너무 예쁜 여학생이었다. 하지만 곧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담임선생님께 얘기하겠지. 난, 늘 그렇듯 혼자 앉으면 되는 거고.

하지만 짝꿍은 매일 매일 내 옆에 앉았다. 심지어 나에게 말을 걸고, 농담을 걸어 주었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 어느 날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엄마가 해준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했다.

이제 학교는 나에게 너무 즐거운 곳이었고 짝꿍이 너무 좋았다.


비가 많이 내리던 7월 어느 토요일 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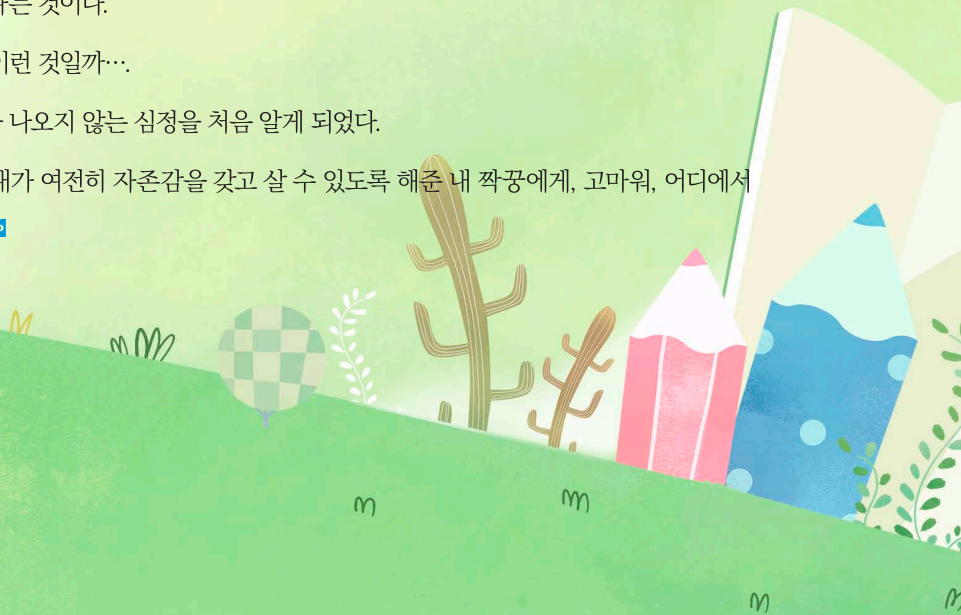
담임선생님께서는 수업이 끝나고 대청소를 마친 후 갑자기 노래자랑을 하자고 제의하셨고 내 짝꿍이 용기있게 손을 들었다. 단, 나와 함께 노래한다는 조건으로. 환호하는 친구들 앞에서 살짝... 내 손을 잡아준 짝꿍과 노래를 하였고 다음 주 등교하기 전까지 너무 행복했다.

근데 그 이후 짝꿍은 학교에 오지 않았고 난 담임선생님께 짝꿍이 오지 않는 이유를 듣게 되었다. 집안 사정으로 다시 전학을 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나와 노래를 하고 싶다며 노래자랑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것이다.

숨이 멎는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

너무 슬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심정을 처음 알게 되었다.

40년이 흐른 지금의 내가 여전히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준 내 짝꿍에게, 고마워, 어디에서든 잘 지낼 거라 믿어. 





겨울 마이산 탐사 가는 길

글 김선호(광주서석고등학교 퇴임)

● 먼발치서 보았을 때마다, ‘어머! 산속에 커다란 양쪽 두 귀만을 보여주는 말이 서 있네.’ 매번 상상하곤 했다. 마이산을 향해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면서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몇 해 전 화창한 늦은 봄날이었다. 지인들과 마이산에 갔었다. 길목과 주차장 주변이 온통 벚꽃과 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벚꽃 분위기에 취한 듯 지인들과 함께 막걸리 몇 잔씩을 걸쳤다. 약간의 취기와 함께 온갖 수다 떨며 탐사 가는 길을 걸었다.

이번엔 둘째 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정이었다. 기쁨을 몇 배로 느끼면서 마이산 탐사를 향해 다시 걷고 있었다. 해가 떴다 비가 오다 번덕스러운 겨울 날씨였다. 급하게 산 우산을 지팡이 삼아 온 가족과 함께 탐사를 가는 길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예전에 동행했던 애들이 커서 20대 후반 성인이 되었다. 분명히 많은 세월이 지나갔다. 올해는 어느덧 환갑 지난 나이다. 짐사람도 3년 후면 환갑이다. 그래서인지 탐사를 가는 내내 많은 생각들을 했었다. 아이들 결혼 문제, 우리 부부 노후 건강 문제 등 의외로 많았었다.

요사이 강추위가 계속되었다. 길옆 개울물은 얼음이 퐁퐁 얼어 있었다. 모두가 옷차림을 중무장하고 있었다. 탐사를 향해 걷는 발걸음만은 가벼웠다.

드디어 마주한 마이산 탐사!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 앞에 펼쳐진 비경에 눈을 땔 수 없었다. “요번에 탐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올릴 거야!” 식구들에게 자랑하듯 작은 욕망을 내비쳤다. 갑자기 또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친 후 인적이 덜할 때를 기다렸다. 재빨리 카메라에 탐사를 배경으로 몇 컷을 담았다. 그때 찍은 사진이 내 카톡에서 몇집을 뽐내고 있다. 마이산 탐사를 몇 차례 방문했었지만 항상 생소한 느낌이 든다. 우리 가족은 탐사 주변을 한동안 구경하고서 전주 숙소로 향했다.

전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이산에 대한 이런저런 대화가 계속 되었다. “우리가 멀리서 보았던 말의 양쪽 귀 모양인 두 봉우리는 하나씩 두 개의 거대한 암석 덩어리다.” 나의 설명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에서 알게 되는 놀라운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았다.

크고 작은 독특한 돌탑들이 즐비한 멋진 탐사에서 경외감마저 느껴보았다. 마이산 가족여행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을 추억거리가 되었다. 📷



자작나무 숲에서

글 임한울(서울 대원여고 퇴임)


새해 계묘년 새 아침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생명의 환희(歡喜)가 샘솟는다

눈부신 설원(雪原)에 은빛 나무바다
 하늘 향해 몸 곧추 세우고
 도열하는 병사처럼 부동자세로 서 있다

상처 입은 삶이지만 부끄럼 없이
 땅속 깊이 깊이 뿌리 박고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

백설공주의 보오얀 살결같이
 귀족부인의 우윳빛 피부같이
 순백의 매끈한 자작나무 군단(群團)

북풍한설 아무리 모질고 매서워도
 각박한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손잡고 자작자작 위로 격려한다

저 어깨 위에 푸른 잎새 피어나면
 푸른 꿈 머금은 산새들
 희망을 노래하며 포롱포롱 날아들리라 





한라봉의 재탄생

차가운 에이드 & 따뜻한 티

글 문소현



꿀보다 크고 울퉁불퉁한
생김새를 가진 한라봉.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으로
벌꿀을 바른 오렌지라고
할 정도로 달달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일품이다.
몸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해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좋다.
얼어 죽어도 차가운 음료가 좋다는
사람들은 '한라봉 에이드'를,
따뜻한 것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한라봉 티'를 추천한다.

한라봉 에이드

재료

한라봉 1/2개, 꿀 1큰술, 레몬 맛 탄산수 1컵

만드는 법


1. 한라봉을 깨끗이 세척한 후 반 개만 잘라 믹서에 갈기 좋게 2등분한다.
2. 믹서에 레몬 맛 탄산수 한 컵, 자른 한라봉, 꿀 1큰술을 넣어 갈아준다.
3. 완성된 주스를 잔에 따르고 예쁘게 자른 한라봉 한 조각을 올려 완성한다.

한라봉 차

재료

한라봉 청 1큰술, 따뜻한 물 1컵

만드는 법

1. 껍질을 깬 한라봉을 설탕과 5:5 비율로 섞어 한라봉 청을 만든다.
2. 냉장고에서 3일 정도 보관하면 청이 완성된다.
3. 한라봉 청 1큰술을 찻잔에 넣고, 80도의 따뜻한 물을 넣은 뒤 잘 저어서 완성한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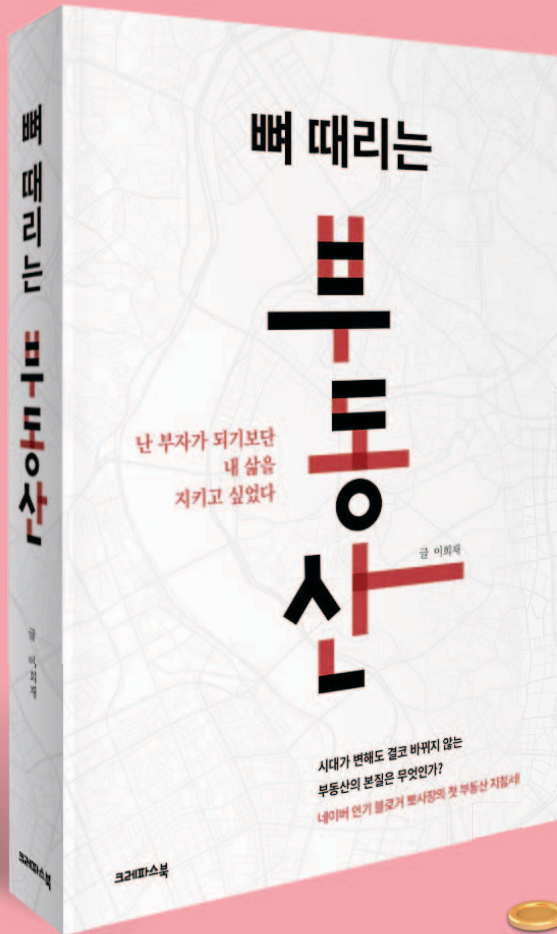
차가 가장 맛있는 물의 온도는 80도.



시대가 변해도 결코 바뀌지 않는 부동산의 본질

책 <뼈 때리는 부동산>

제공 크레파스북




*본 도서는 출판사 '크레파스북'에서 협찬 받은 도서로 이벤트를 통해 5분께 증정합니다.

‘뼈 때리는’ 입담, 흡입력 있는 문체

네이버 인기 블로거 보사장(본명 이희재)의 첫 부동산 지침서 『뼈 때리는 부동산』이 출간되었다. 제목인 ‘뼈 때리는 부동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거나 내 집 마련을 주저했던 사람들에게 ‘뼈 때리는’ 현실을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뼈 때리는’ 분석과 평가가 두 번째다. 책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저자의 ‘뼈 때리는’ 입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흥미롭게 전개된다. 다양한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부동산의 본질을 짚어내는 통찰 그리고 독특한 호흡으로 풀어내는 문체가 예상외로 않다. 끊어질 듯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문장은 언뜻 길게 느껴지지만, 막상 읽어보면 마치 옆에서 얘기해주듯 술술 읽히는 묘한 흡입력이 있다. 저자는 그동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통쾌하게 풀어내면서 많은 방문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번 『뼈 때리는 부동산』은 그동안 블로그에 소개했던 글을 정리·보완하면서 보다 완성도를 높인 첫 결과물이다.

장르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부동산 에세이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사유, 사실과 데이터를 근거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부동산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도시, 지하철, GTX, 아파트 등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담론들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다른지, 일반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도 소개한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조언도 빼놓지 않았으며, ‘땅의 온기’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서울/수도권 입장기도 수록했다. 특히 ‘남서울, 영동 I~III’으로 이어지는 강남 개발의 역사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주제이자 서울 부동산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뼈 때리는 부동산』은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부동산 에세이로서 지난 몇 년의 폭등기를 거치며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 이동의 자유를 잃어버린 1주택자와 다주택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한 듯 통쾌한 느낌을 전달할 것이다. 



현명한 소비자가 지구를 지킨다! 저탄소 인증제품



이상기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탄소중립은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니다.
산업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사람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 이들에게 반가운 제품이 바로 '저탄소 인증제품'이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무엇이며,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글 정미래

저탄소 인증제품이란?

'저탄소 인증제품'은 2011년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저탄소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저탄소 제품은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하여 환경성적 표시 인증 제품 중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 또는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인 제품이다.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환경성적표시인증제품의 동종제품 평균 탄소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값

• 최소탄소감축률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업종별 감축목표'에 기초한 3.3%

왜 저탄소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할까?

저탄소 인증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저탄소 인증제품은 누적 1,470만 톤 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일조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사회와 환경에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소비자의 구매는 기업의 저탄소 인증제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하여 환경경쟁력 기여에 이바지한다.

• 인증 효과 산정 방법

신규 인증제품의 감축효과[톤CO₂]

= {신규 인증제품(저탄소제품)의 온실가스 감축량 × 해당 제품의 판매량}

• 저탄소 제품 인증 및 온실가스 감축량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저탄소제품 인증(건)	신규	53	55	36	51	93	167
	누적	405	460	496	547	640	807
온실가스 감축량	신규 (만 톤 CO ₂)	54.6	60.6	73.0	85.7	34.2	101.7
	누적 (만 톤 CO ₂)	486	648	836	1,055	1,248	1,470

2021년까지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인해 1,470만 톤 CO₂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 1,470만 톤 CO₂는 30년생 소나무 약 20억 3천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인데, 이는 서울 특별시의 22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또 승용차 약 612만 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기도 하다.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저탄소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은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품 전면에 표기된 저탄소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저탄소 인증제품을 확인하고 싶다면 녹색제품정보 시스템에 접속해보자. 저탄소 인증제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녹색제품에 관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용도별, 장소별, 어린이활동공간별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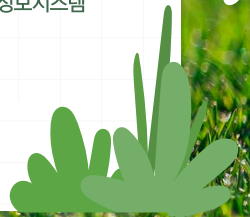
2022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저탄소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38개, 제품은 492개에 이른다. 이 기업과 인증제품 중에는 생소한 제품과 서비스도 있지만 우리 생활과 가까운 제품과 서비스도 많다. 그중 몇 가지를 확인해보고 환경을 위한 소비를 실천해보자.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녹색제품을 검색해 보세요! ▶

기업명	인증제품명
한국 코카-콜라(유)	·강원 평창수[2L] ·취오 순수[2.0L, PET]
산수음료(주)	·가벼운샘[0.5L, 1.0L, 2.0L] ·산수[18.9L] ·깨끗한샘[1.0L, 2.0L]
삼성전자(주)	·포터블 SSD T7 Touch ·포터블 SSD T7[1TB]
한국철도공사	·철도운송서비스(KTX, 서울-부산 노선)
한국남동발전(주)	·영동에코발전본부 생산전력[우드펠릿]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삼다수[330mL, 500mL]
스파클(주)	·스파클 먹는샘물[500ml, 2.0L]
풀무원샘물(주)	·풀무원샘물[500ml, 2L]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중앙) 열 에너지[수열] ·동탄지사 열 및 전기 에너지[LNG] ·고양사업소 열 에너지[수열] ·세종지사 열 에너지[LNG] ·용인지사 열 에너지[LNG] ·청주지사 열 및 전기 에너지[B-C유] ·판교지사 열 및 전기 에너지[LNG] ·광교지사 열 및 전기 에너지[LNG] ·삼송지사 열 및 전기 에너지[LNG] ·파주지사 열 및 전기 에너지[LNG] ·화성지사 열 및 전기 에너지[LNG] ·강남지사 열 및 전기 에너지[LNG] ·대구지사 열 및 전기 에너지[B-C유] ·수원지사 열 및 전기 에너지[B-C유]
(주)삼양사	·큐원 하얀설탕[1kg, 3kg, 15kg, 1ton] ·큐원 갈색설탕[3kg, 15kg]
한울허브팜	·노브랜드 카모마일 베이비 물티슈[100매x 6개]

출처: 조달청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 정책브리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난 좋아하는 분야 하나면 돼! MZ세대의 소비트렌드, '디깅소비'

가치 있다 생각된다면? '디깅소비'!



디깅소비 =
dig(파다) + 소비

자신이 선호하는 영역을
깊게 파고들어
관련된 제품을 소비하는 것!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가보다 10만 원이나 더 비싸서
살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 LP판이 얼마나 귀한데요.
팔아주셔서 제가 감사하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 곧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디깅(digging)’은 원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일에 깊이 파고드는 행동을 뜻했다. 이 행동이 소비와 결합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의 제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문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디깅소비’다. 좋아하는 분야를 더 나아가면서 새로운 관계도 맺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디깅소비에 대해 알아보자. [in](#)

글 문소현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들다, ‘디깅소비’의 매력



좋아하는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소위 ‘덕질’을 즐기는 MZ세대. 그들에게 ‘디깅소비’는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SNS를 통해 소통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처음 오는 동네 할 것 없이 한 바퀴, 두 바퀴... 주차장을 찾았어도 빈자리를 찾느라 빙빙 돌아다니던 운전자들. 이러한 번거로움을 단번에 해결해 줄 앱이 있으니 바로 '모두의주차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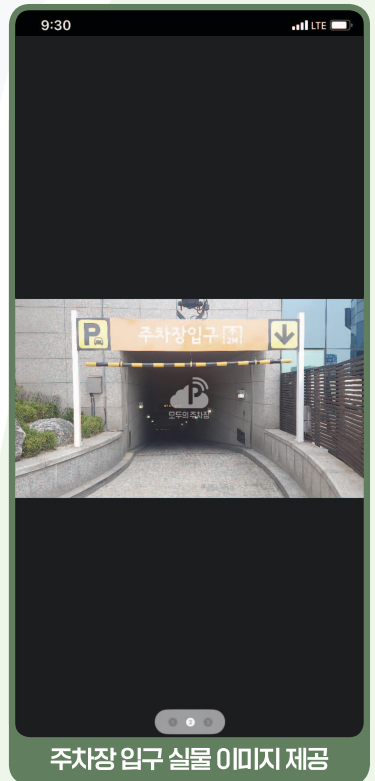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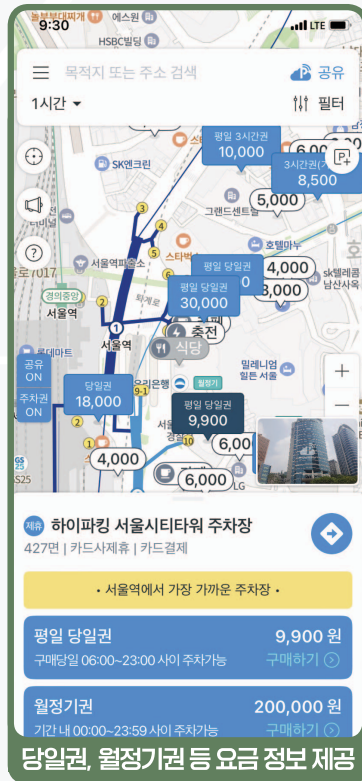
글 김지희

전쟁같이 느껴지는 주차는 이제 그만! '모두의주차장'

주차장 찾기, 이렇게 쉬운 거였어?

주차장 찾느라 약속 시간에 늦고, 무턱대고 찾아간 주차장의 비싼 요금에 놀란 적이 있다면 '모두의주차장' 앱을 이용해야 할 때이다. '모두의주차장'은 내 주변에 있는 주차장 위치는 물론 주차요금, 운영시간, 카드결제 가능 여부까지 알려준다.

세부적으로는 시간당 금액과 당일권, 월정기권 금액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어 자신과 맞는 주차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휴여 주차장이 헛갈릴 수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주차장 실물 이미지까지 제공하여 편리함을 더했다.



이제 주차도 예약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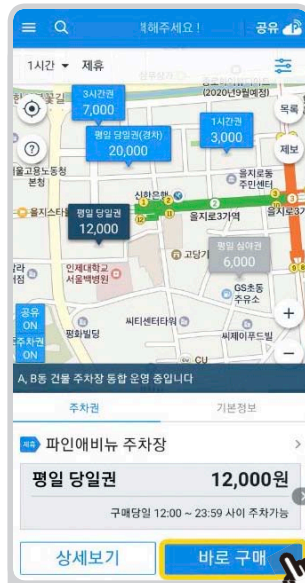
‘모두의주차장’ 서비스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차 자리를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앱 내에서 원하는 주차

장을 선택한 후 주차권을 구매하면 현장결제보다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http://m.parki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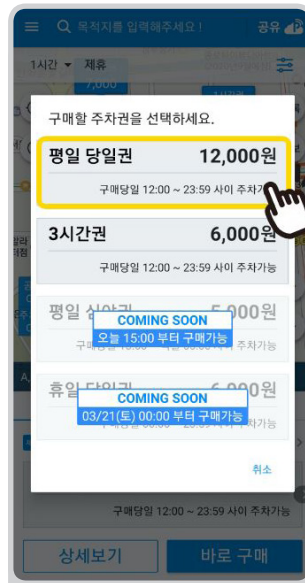
주차권 구매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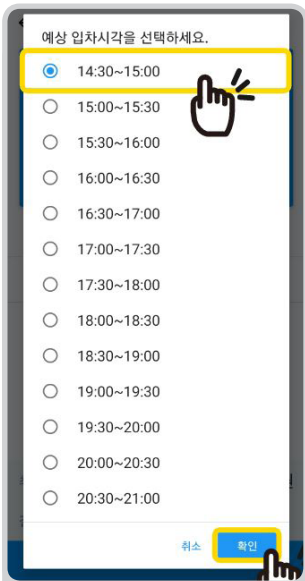
① 지도 화면에서 주차권 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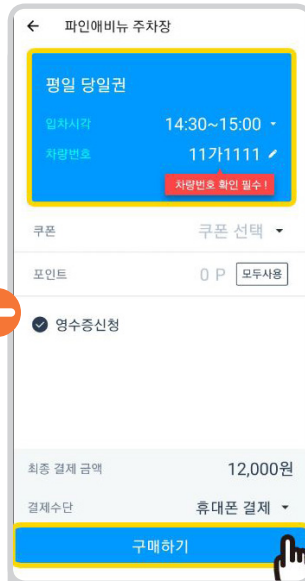
② [바로 구매]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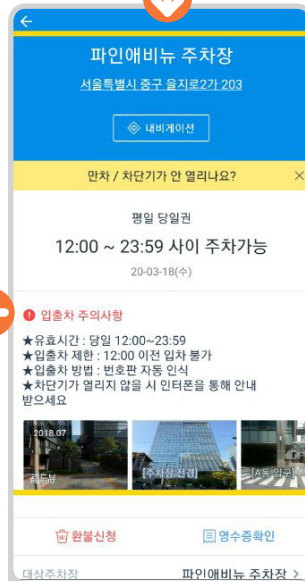
③ 구매 원하는 주차권 선택



④ 주차장 입차 예정시간 선택



⑤ 차량 정보 입력 후 결제



⑥ 주차권 확인

유튜브 이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좋댓구알’



아이부터 어른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플 ‘유튜브’.

유튜브는 2022년 대한민국 웹사이트 접속 순위 3위에 달성할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

유튜브에서 한 개의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다음 영상부터 관련 영상까지 추천해준다 보니 시간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된다.

신나게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좋댓구알’을 부탁한다는 자막이나 음성이 등장한다.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좋댓구알’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민지야! 나 이번에 영덕 여행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업로드 하기 전에 한 번 봐주~

오~ 편집 잘했는데? 이대로 업로드 하면 되겠다!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야?



아직 300명이야. (ㅠ) 앞으로 꾸준히 편집해서 올려야지!
'좋댓구알' 부탁해!

응! 알겠어 :) 😊



----- 며칠 뒤 -----



대박! 영상 마지막에 **'좋댓구알'** 부탁한다는 자막을 추가했더니
구독자가 무려 20명이나 올랐어!

나도 **'좋댓구알'** 했지~ 어제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다는 알림이 바로 오던데?
이번 영상에도 좋아요 꼭 눌렀어. 다시 봐도 편집을 정말 잘했다니까!



고마워~ 😊
너도 유튜브 시작해봐. 하면 할수록 재미있을걸?

그렇다면 시작해볼까? 채널 이름은 '민지 채널 좋댓구알'어때?
ㅋㅋㅋㅋㅋㅋㅋㅋ 😊 재밌겠다!!



2023년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상품의 뒷면 혹은 하단에 기입되어 있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 소비기한이란 상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냉동·냉장 보관했을 시 '먹어도 되나?'라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입학금 폐지

기존에는 대학 등록금 이외에 입학금을 따로 지불해왔다. 그러던 2018년 국공립대학교를 시작으로 사립대학교의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고 있다. 2023년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질 예정이며, 이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체크무늬 교복 소멸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는 한국의 중, 고등학교 교복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동일한 학교의 교복들은 전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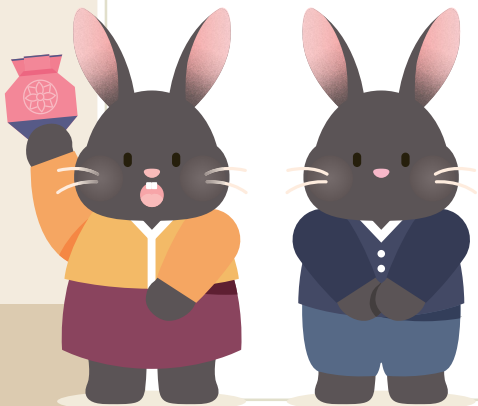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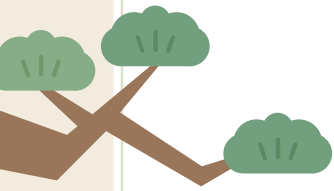
27년 만에 사라지는 익스플로러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창 익스플로러 지원을 종료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우에서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없다. 익스플로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한 지 27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1살에서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만 나이

올해 6월 말부터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는 '한국 나이'가 사라지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가 적용된다.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최소 1살에서 2살까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년은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기준점이 된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어떤 것들이 변화할까.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3년 이슈들을 소개한다.

글 김지희



전기요금 인상

2023년 1분기, 전기 요금이 1kWh당 13.1원 인상됐다. 이는 4인 가구에서 307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4,022원이 인상된 가격이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1981년 오일쇼크 이후 최고, 최대 폭으로 상승한 금액이다.



공동주택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했던 2022년. 이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었다. 직접 충격 소음을 기준으로 주간과 야간 모두 4dB 가량 낮아졌기 때문에 생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 65세 이상 교통비 감면

만 65세 시민들은 KTX, 새마을호(주말, 공휴일 제외), 무궁화호의 요금을 3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항공 국내선,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10% 할인(성수기, 일부 노선 제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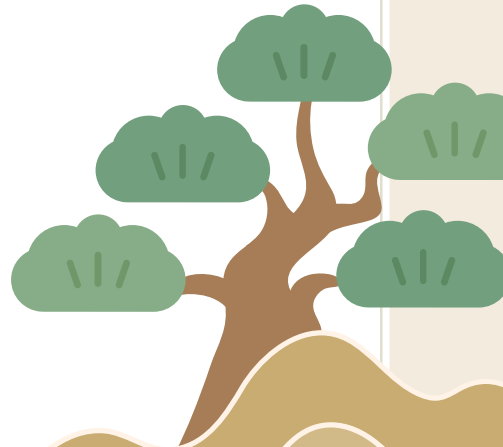
이젠 '강원특별자치도'로 불러주세요

조선 태조 4년부터 불리던 '강원도'라는 명칭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6월 11부터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북한과 근접하다는 이유로 여러 규제에 묶여 있었던 강원도의 변화가 기대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됐다. [fnp](#)



이벤트는 월간 <사학연금> 웹진에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웹진에서만 즐기는 이벤트!

- ① 알쏭달쏭 빈칸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 ② 월간 <사학연금>의 칼럼을 읽고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참여방법: 웹진 접속 후 메인 하단 EVENT 코너 클릭!

참여기간: 2023년 2월 13일(월)까지



월간 <사학연금>은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2월 13일 마감)

코너명	코너 소개	응모 방법	독자 선물
만남 (인터뷰)	월별 테마에 맞는 사학가족을 찾습니다. 3월호 테마-반려동물학자 콜린 페이지(반려동물)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입니다. 2006년 세계 모든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의미로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이를 함께 기념하고자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콜린 페이지처럼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선생님 또는 사학가족을 추천해주세요.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사진 인화 및 탁상용 액자
짓다	사학가족이 직접 쓴 시 또는 수필을 소개합니다. *내용과 주제는 자유	한글 파일 형태로 원고지 10매 이내 (10포인트 기준 A4 1장)로 작성하여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문화상품권
인생 책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해당 도서를 읽으면 좋을 만한 사학가족을 추천해주세요. 해당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도서
웹진 이벤트	1. 빈칸 채우기 2. 독자의견	웹진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

이벤트 참여 방법

🌐 이메일 magazine@tp.or.kr

*독자 선물 제공에 필요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선물 발송일: 해당 월(기교 글이 게재된 달) <사학연금> 발행 후 15일 이내로 발송됩니다.

응모기간
2023년
2월 13일(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49%



20년 경력 분가별 협진의료진



강남역 월수, 가락점 목, 신림점 월화수
야간진료 9시까지



치아교정
추가비용 0원!



대표원장이
진료, 소유하는 치과
대표원장 직접 운영!

제휴가 안내

* 예약 및 병원 내원 시 제휴사 명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국산 임플란트



55~65만원
(3개 이상) (1~2개)

오스템 임플란트



65~75만원
(3개 이상) (1~2개)

아스트라 임플란트



95만원

연세유라인치과의원 마케팅팀

권재열 팀장
010-3791-4840

임플란트	국산 임플란트	55~65	만원
	오스템 임플란트	65~75	만원
	아스트라 (강남점, 신림점 가능)	95	만원

* 임플란트 시술 시 뼈 이식비용은 별도입니다.
* 강남역점/신림점은 워랜텍, 가락점은 디오 제품을 사용합니다.
* 제품 및 시술개수, 치아상태, 추가시술 여부 등에 따라 제휴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 (약당)	국산	600	만원	* 임플란트 (8개 기준) + 뼈 이식 포함 + 보철 포함 (상약동 거상술 별도)
	오스템	650	만원	
	프리미엄 오스템 SOI (오스템 최고등급)	700	만원	
	아스트라 (강남점, 신림점 가능)	780	만원	

충치치료	인레이	20	만원
	골드 인레이	28	만원
	크라उन	32	만원

* 골드크라उन 비용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충치치료 시 코어(4만원), 포스트(12만원)입니다.

틀니	전체 틀니(약당)	144	만원	* 임플란트 4개 식립 * 임플란트 2개 식립
	임플란트 틀니	상약 450 하약 350	만원	

심미치료	미백패키지 VAT 별도	30	만원
	라미네이트 VAT 별도	40	만원

치아교정	메탈 교정	280	만원
	클리피씨 교정	360	만원
	콤비 교정	560	만원
	MTA 교정	99	만원

12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적용 예시

치아교정 추가비용 0원!

* 치아교정은 강남역점, 신림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교정진료 기간에 따라 월 분납비 및 납부 개월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강남역점 오시는길

2호선 강남역 1번출구 바로 앞 (스타벅스건물)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프라자빌딩 17층
평일 10:00~19:00 | 월수 (야간진료) 19:00~21:00
토 10:00~15:00 | 점심시간 12:30~14:00

가락점 오시는길

3,8호선 가락시장역 4번출구 (기업은행건물)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 효원빌딩4층
평일 09:30~18:30 | 목 (야간진료) 18:30~21:00
토 09:30~13:00 | 점심 13:00~14:00

신림점 오시는길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40 르네상스스펩몰 8층
평일 10:00~19:00 | 월화수 (야간진료) 19:00~21:00
토 10:00~15:00 | 점심시간 12:30~14:00

온라인상담
ulineclinic.com

카톡상담
@연세유라인치과

강남역점/신림점 예약문의
1522-9128

가락점 예약문의
02)423-7528

사학연금(TEACHERS' PENSION) QR코드 안내



웹진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림톡

알림톡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dream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88-4110

본사(나주)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 061) 338-0000

서울센터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7층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 02) 769-4401~4404

대전센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4층 (둔산동)

☎ 042) 538-2371~2375

부산센터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 7층 (범천동)

☎ 051) 637-6015~60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전·부산센터는 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을 통한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12:00~13:00) 휴무제를 운영합니다.